

기획연재 ● Projected Series

우리 역사 속 기록 ; 백제편

금석문을 통해 본 백제인의 생사관

박중환 _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천년 만에 밝혀진 미륵사의 꿈과 사랑

조경철 _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금석문을 통해 본 백제인의 생사관

글 | 박중환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01

백제는 국가의 성장과정에서부터 황해도 · 평안도 일대에 자리잡고 있던 한군현과 가까이 있었고 중국 대륙과도 인접해 있었다. 때문에 삼국시대 당시 세계의 중심으로 열려있는 고대국가였다. 백제문화는 늘 바깥세계와 교류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백제인들의 사상 또한 다채로운 양상이었다. 생사관을 비롯한 그들의 사유 역시 토착적 사상에 더하여 중국을 통해 유입된 도교사상이나 불교사상 등이 혼재된 형태였다. 또 토착적 사유구조가 새로운 외래 사상을 만나면서 변화되어 가는 모습도 관찰된다.

생사관은 인간의 종교적 심성의 주요한 토대를 이룬다. 종교적 사유에 따라 내세관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생사관이나 내세관은 고대인들의 관념 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생사관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개념들로는 내세관(來世觀), 타계관(他界觀), 계세사상(繼世思想), 또는 계세적 내세관 등이 있다. 생사관은 죽음을 경계로 생(生)과 사(死)를 인식하는 태도에 대한 개념이고, 타계관은 사후에 영혼이 머무는 장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계세적 내세관은 이승에서의 생활을 사후에도 계속한다는 연속적 인식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내세관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이들 개념들은 서로 중첩된 영역을 가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포 · 확장된 영역을 가지기도 한다.

백제인들의 생사관은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와 같은 문헌자료를 통하여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실물로서 전해지는 금석문이나 목간자료를 통해서 보다 생생한 형태를 읽을 수 있다. 불교나 유교와 같은 고등 종교의 수용 이전 고대 한국인들은 샤머니즘이라고 불리는 종교적 사유 체계에 의한 세계관과 내세인식을 가지고 현실과 내세를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내세 인식을 담고 있는 본격적인 금석문 자료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백제인의 경우에 있어서 그들의 내세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금석문 자료는 무령왕릉 출토 지석이나 방격규구신수문경과 같은 자료들이다.

❀ 무령왕릉 매지권에 나타난 지하타계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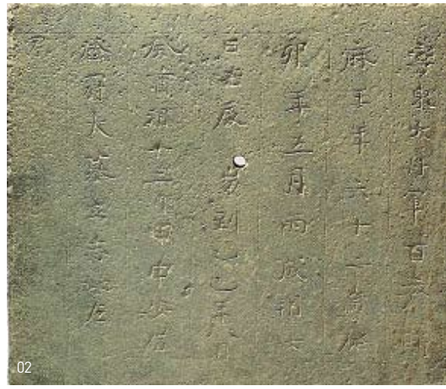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2매의 지석 가운데 1점의 표면에는 무덤의 터를 토지신으로부터 구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매지권문(買地券文)이 음각되어 있다. 무령왕릉 출토 매지권에 새겨진 명문과 해석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錢一萬文 右一件 乙巳年八月十二日寧東大將軍 百濟斯麻王以前件錢詣土王土伯土父母土下衆官二千石 買申地爲墓故立券爲明 不從律令

전일만문 우일건
을사년 8월 12일 영동대장군 백제 사마왕이 이 앞 건의 돈으로 토왕과 토백, 토부모, 이천석 이상의 여러 상하관리들 앞에서 신지의 땅을 사서 무덤을 만들고 이 매지권을 세워 증명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땅은) 율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매지권의 내용은 왕의 무덤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전 일만문을 내고 지신으로부터 묘토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매지권문의 끝부분에 있는 '부종율령(不從律令)'이라는 표현이다. "묘토를 지신으로부터 구입했으므로 (이제부터는) 율령의 구속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율령은 현세의 법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명부세계의 지신들에 의해 규정된 법령체계를 가리킨다. 법률을 의미하는 '율령'의 개념을 사후세계에서도 통용되는 개념으로 확장시킨 것이다. 당시 백제인들은 왕의 영혼이 단순히 지하 공간에 머무는 데 그치지 않고 지하에서도 현세에서와 동일한 생활을 영위하며 복잡다단한 송사와 행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일상을 겪는다고 믿었던 것이다. 치외법권이 유지되는 지하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러한 매지행위의 배경에는 현세에서 누린 국왕으로서의 권력과 영화로운 삶이 사후세계에서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희망이 자리하고 있다. 명부세계의 신들과 함께 등장하는 상하 2천석질의 여러 관리들 또한 명부세계의 고위관리들이다. 토왕은 지하세계를 지배하는 태산부군(泰山府君)이며 토백은 명부의 사적(死籍)관리 및 사자의 구인(死者拘引)을 담당하는 신, 상하중관들은 명계(冥界)의 지방관이라고 생각되고 있다.

무령왕릉의 매지권은 중국 남조의 묘장 전통을 수용한 것이지만 무령왕릉을 만들던 523년 전후의 백제인들이 갖고 있던 내세관, 특히 지하타계관의 한 모습을 보여준다. 이미 백제인의 관념 속에 지하타계관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국 남조의 외래적 문화 요



02

01 무령왕릉 출토 매지권의 탁본
충남 공주의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두 장의 묘지석 가운데 왕비의 지석 반대 쪽에 새겨진 문건이다. 처음 무령왕이 묘에 안장될 때 왕의 묘지와 나란히 놓았던 두 장의 석판 가운데 하나에 해당되는데 무덤의 터를 지신으로부터 구매하는 형식의 문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02 무령왕릉 출토 왕 묘지석
무령왕릉 출토 묘지석 가운데 왕의 묘지를 새긴 것이다. 동시대 중국 남조의 묘지석에 흔히 등장하는 생시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고 무덤의 주인공 이름과 몰년월일, 향년, 대묘안장일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를 충돌없이 수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하타계관은 수직적 타계관의 한 유형으로 지하를 타계(他界)로 상정하는 것이다. 풍장(風葬)이나 화장(火葬), 수장(水葬)과는 달리 지하에 시신을 묻는 장법인 매장은 사후 세계를 지하로 인식하는 지하타계관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고대 한국의 지하타계관을 후대 불교, 또는 중국의 황천(黃泉) 관념의 영향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우리 고대의 고분은 풍장이나 화장, 수장보다 매장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를 외래사상의 영향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무령왕릉에서는 왕과 왕비의 묘지도 발견되었다. 이 묘지의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사망 일시와 대묘에 안장되는 일시가 다르다는 점이다. 왕의 경우 계묘년 5월 병술삭 7일 임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을사년 8월 계유삭 12일 갑신에 대묘에 안장되고 있다. 왕비도 세상을 떠난 것은 병오년 11월이었는데, 대묘에 안장된 것은 기유년 3월 계미삭 12일 갑오였다. 무령왕과 왕비의 장례에 27개월 간의 빈장(殯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빈장기간도 중국이나 신라, 고구려 등의 인접국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유례없이 긴 것이었다.

빈장제도가 내세에 대한 관념과 관련하여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몇 가지 가능성이 추론된 바 있다. 사자(死者)의 부활에 대한 기대로부터 비롯되었을 가능성, 능 축조에 소요되는 준비기간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 육탈을 위한 장법의 한 과정으로 나타났을 가능성 등이다. 하지만 고구려나 백제에서의 빈장은 그들이 가졌던 죽음과 내세의 삶에 대한 그들 만의 보다 독특한 내세인식에 기반한 장법(葬法)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인접국의 예에서 보기 드문 죽음과 사자(死者)에 대한 독특한 관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으면 집안에 안치하여 두었다가 3년이 지난 뒤에 길일을 가려 장사를 지낸다."는 『수서』(『隋書』)의 기록으로부터 백제인들의 생사관과 내세관의 특징을 잘 볼 수 있다. 백제인들은 죽은 자를 산 자와 동일하게 집안에 3년 동안 안치해 두었다는 것인데, 이는 그들이 죽은 자를 산 자와 같이 일정 기간 생전의 거택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사람이 죽은 뒤에도 그 영혼이 산 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동일하게 생활하고 호흡할 수 있다고 믿는 계세적 내세관의 발현이었을 것이다.

❀ 도교사상에 기반한 생사관

도교사상은 백제를 비롯한 한국 고대사회에 불교 못지않게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기록이나 유물, 유적은 거의 없다. 때문에 드물게 발견되는 금석문 자료는 백제인들의 도교적 사유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무령왕릉 축조 시기에는 그 이전부터 중국으로부터 유입되어 온 신선사상이 백제 왕실과 백제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신선사상의 흔적이 남아있는 백제의 금석문 자료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방격규구신수문경(方格規矩神獸文鏡)이다. 그 명문 내용과 해석문은 다음과 같다.

尙方作竟眞大好 上有仙人不知老 渴飮玉泉飢食棗 壽如金石兮

상방에서 만든 거울은 참으로 좋아서 옛날 신선들이 늙지 않았고, 목이 마르면 옥천(玉泉)의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프면 대추를 먹으며 쇠나 돌같이 긴 생명을 누렸도다.

이 청동거울의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은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신선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며, 함께 등장하는 동물들 역시 신선세계에 사는 동물들로 보인다. 명문 가운데 '渴飮玉泉飢食棗'의 부분은 불로장생을 얻기 위해 신선들이 채용했던 방생술(方生術)과 양생술(養生術)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신선들의 세계에 대한 동경은 모두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의 한 형태였다. 이러한 소망은 불확실한 사후세계에 대한 두려움이나 산 사람들과의 영원한 이별의 공포를 회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상정된 것이며, 그 구체적인 방법이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삶 즉 장생불사의 추구였던 것이다.

❀ 불교사상에 의한 생사관의 변화

불교사상은 백제인들의 사유구조를 이해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하지만 불교사상의 영향을 발견할 수 있는 문헌자료나 금석문 자료들은 사비시기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백제의 금석문 가운데 불교적 내세관을 읽을 수 있는 자료로는 부소산 영일루 부근에서 발견된 '정지원'명 금동삼존불입상과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출토된 '숙세결업'명 목간의 명문 등을 들 수 있다. '정지원명 금동삼존불입상'의 명문은 금동삼존불의 광배 뒷면에 세로 방향으로 3행의 글을 새긴 것이다. 그 내용과 해석문은 다음과 같다.

鄭智遠爲亡妻 趙思敬造金像 早離三途

정지원이 세상을 떠난 아내 조사를 위하여 공경스럽게 금으로 불상을 만드옵나이다. 부디 삼도(의 고통으)로부터 빨리 떠나게 해 주소서.

이 불상의 명문 내용은 세상을 먼저 떠난 자신의 처가 지옥 · 아귀 · 축생의 3악도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기원하여 남편인 정지원(鄭智遠)이 불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명문의 내용에서 서원자인 남편 정지원은 세상을 떠난 자신의 처가 삼도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지 않도록 발원하고 있다. 이러한 발원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생존해 있는 가족들의 추선(追善)에 의해 망자의 영혼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초기 불교적 생사관이다.

신라에서는 이러한 추선 노력이 진흥왕대에 시작된 팔관회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한다. 당시 백제인들은 생존자들의 노력으로 이미 이 세상을 떠난 망자 영혼의 존재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이것은 현세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의지와 종교적 노력으로 내세를 변용시킬 수 있다고 믿는 내세관의 유형이다. 이 금석문에 나타난 내세관의 변화가 일차원적 사후세계관에서 이차원적 사후세계관으로 변화해 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고대 한국인들은 원래 인간이 죽으면 막연히 현실세계와 다른 모처의 세상으로 옮겨 간다는 일원적 내세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교와 같은 고등 종교의 영향으로 생전의



03

03 무령왕릉 출토 방격규구신수문경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세 점의 청동거울 가운데 하나이다. 후한대 유행한 방격규구경의 형태를 모방했지만 그 문양 구성은 독특하다. 네 마리의 동물과 이들을 사냥하는 신선을 묘사했고 그 둘레에 길상구를 배치했다.

04 '정지원'명 금동삼존불입상
1919년 부소산성에서 발견되었다. 전형적인 삼국시대의 일광삼존불의 형태를 취한 것으로 6세기 후반에 유행한 형식이다. 광배 뒷면에 3행으로 새긴 발원문이 있다.



04

행위에 따라 그가 가는 사후세계의 유형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이원적 사후세계관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지원'명 금동삼존불입상의 명문은 또 다른 시각에서 내세관의 보다 중첩된 유형을 보여주는 자료가 된다. 불상을 만든 이유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내세에서 평안하도록 하기 위해서만이 아닌 또 다른 배경이 작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혹시 있을 수도 있는 망자의 저주에 의해 발원자를 비롯한 살아있는 사람들이 질병이나 생활상의 위해(危害)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동기가 있었을 수 있다. 고대의 한국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이 그 의지에 따라 산 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죽은 사람이 생존자들에게 원한을 가진 경우 산 사람에게 질병을 비롯한 불행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산 사람이 그러한 저주를 당하지 않으려면 죽은 사람의 원한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록 고구려의 것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인식을 보여주는 기록이 『삼국사기』 고구려전에 실려있는 탁리와 사비에 대한 이야기이다. 『삼국사기』 해론전(奚論傳)에 나오는 찬덕(讚德)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역시 같은 생사관에 기초한 것이다. 해론의 아버지 찬덕은 진평왕대에 가잠성(椵岑城) 현령으로 선발되었는데, 다음해 백제군의 공격을 받고 성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 때 찬덕은 사후에라도 악귀가 되어 백제인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선언한다. 죽어서 큰 악귀가 되어 백제인들을 다 물어 죽이겠다고 외치는 찬덕의 절규는 원한을 품은 귀신이 생존자들에게 복수할 수 있다고 하는 사후세계와 영혼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전투에서 찬덕의 저주 대상이었던 백제인들 또한 이러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정지원'명 금동삼존불입상의 불상 조성 배경과 명문의 의미도 그러한 시각에서 보다 복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망자의 영혼이 생존자들에게 가할 수 있는 위해를 막기 위해 생존자들이 그에 대한 해원(解寃)으로 불상 조성이라는 불교적 방법을 이용한 것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 남아있는 명문기록 만으로 극락왕생 만을 바란 것인지 해원을 의도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다. 망자 영혼의 극락왕생에 대한 기원과 함께 혹시 있을 수도 있는 영혼의 저주로부터 생존자의 안녕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가 표리를 이루면서 나타나게 된 불상 조성이었을 지도 모른다. 다만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당시 백제인들이 생존자들의 노력과 염원으로 망자 영혼의 존재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 내세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동시에 그러한 내세관은 원한을 가진 영혼이 생존자들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하는 영혼관과 부합하여 현세와 내세를 서로 소통 가능한 영역으로 인식하는 생사관념이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05 능산리 출토 '숙세결업'명 목간 전면(좌측), 후면(우측)
2000년 부여 능산리 절터에서 발굴되었다. 직사각형을 띤 독특한 형태의 목간이며 묵서로 쓴 두 줄의 글이 잘 남아있다. 뒷면에도 묵서가 있으나 뒷면의 글은 유존상태가 좋지 않다.

사비시대의 금석문 자료로써 불교적 윤회 인식을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부여 능산리 출토 '숙세결업'명 목간이다.* 이 목간은 발굴된 유적의 위치와 성격으로 보아 6세기 중반에 제작 ·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묵서의 내용과 해석문은 다음과 같다.

宿世結業 同生一處 是非相問 上拜白事

전생에 맺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같은 장소에서 태어났다. (이에) 옳고 그름을 서로 물어서 예를 갖추고 (그 내용을) 밝힌다.

이는 형제간이나 그와 유사한 혈연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서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인연의 소중함을 들어 서로 예를 잃지 않고 처리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해석된다. 또 다른 견해에 따르면 결혼을 앞둔 남녀에게 오늘날의 성혼선언이나 혼인서약과 같은 절차를 위하여 혼인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문건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 이 목간의 묵서 내용 가운데에는 우선 불교적 연기론과 윤회사상의 일단이 주목된다. 묵서 내용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내세의 일이 아니라 '숙세'(宿世)로 표현된 전생에서의 인연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전생에서의 인연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현세에서의 관계에 대한 인식은, 곧 현세를 기점으로 볼 경우 내세에서의 삶을 예견하게 해 주는 인식의 틀이 된다. 이는 죽음과 생이 밀접한 관련 속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끝없이 윤회한다고 하는 불교적 윤회사상을 나타낸 것이다. 죽음 뒤에는 현세에서의 인연과 업보의 결과로 내세에서 새로운 인연이 결정된다는 연기설과 윤회 사상을 백제인들이 체득하고 있었음을 사비시기에 만들어진 이 목간이 말해주고 있다.

● 필자소개
전남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백제 금석문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광주 · 부여박물관 학예연구사, 부여 · 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연구기획부 학예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다. 「한국 고대 목간의 형태적 특징」, 「문헌을 통해 본 백제의 동물희생」 등의 논문이 있다.

* 일차적인 의미의 금석문은 쇠나 돌 위에 기록을 남긴 문자자료를 가리킨다. 하지만 나무에 글씨를 쓴 목간이나 토기, 기와 등에 글씨를 쓴 문자자료를 포함하여 넓은 의미를 가진 금석문의 개념이 사용되어 왔다.

천년 만에 밝혀진 미륵사의 꿈과 사랑

글 | 조경철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01

최근 '공주의 남자'와 '해를 품은 달'이란 드라마가 인기리에 방영되었다. '공주의 남자'는 원수지간인 김종서 아들과 수양대군 딸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었고 '해를 품은 달'은 사랑하면 할수록 헤어져야 하는 왕과 무녀(巫女)의 이야기를 다루었다.

위 두 드라마는 가공의 이야기이지만 역사 속에도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이야기가 있다. 고려[고구려]의 평강 공주가 바보 온달과 결혼한 이야기나 백제의 서동이 신라의 선화공주와 결혼한 이야기가 그것이다. 고대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공주와 평민의 사랑이나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두 나라의 전쟁 상황에서 적대국의 왕자와 공주의 사랑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다.

온달이 온달산성에서 전사한 후 시신이 움직이지 않다가 평강의 손길이 미치자 비로소 시신을 운구할 수 있었다거나 왕자 시절 어렵게 마를 팔던 서동이 '못된' 노래인 서동요를 불러 선화공주를 꼬였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비장미와 해학을 보여주며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는 일연이 13세기 말에 지은 『삼국유사』에 전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서동은 백제의 서울 남쪽 연못가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연못 속의 용과 정을 통하여 태어났다고 한다. 서동은 어려서부터 마를 캐어 팔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루는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가 절세의 미인이란 소리를 듣고 자기의 배필로 삼고자 하였다. 그래서 신라로 건너가 아이들에게 마를 나눠주면서 '선화공주님은 밤마다 몰래 서동을 안고 논다네'란 서동요를 부르게 하였다. 이 노래가 널리 퍼져 진평왕의 귀에까지 들어가 선화는 결국 쫓겨나게 되었다. 서동은 길가에서 선화를 기다렸다. 선화는 처음 보는 서동이 미더워 보여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되었다. 선화는 나중에 이 모든 것이 서동이 꾸민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오히려 서동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선화는 어머니 마야부인이 건네 준 황금을 보여주면서 이것이면 둘이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가난한 서동을 위로하였다. 서동은 황금이 그렇게 가치 있는 줄 몰랐다면서 자신이 마를 캐던 곳에 황금이 산처럼 쌓여있다고 하였다. 둘은 용화산 사자사의 지명법사의 힘을 빌어 황금 한 보따리를 신라 왕궁에 날려 보내었다. 서동은 진평왕 신임을 받았고 인심을 얻어 무왕이 되었다. 나중에 무왕과 선화공주는 익산의 사자사에 가는 도중에 연못에서 미륵 삼존이 솟아나온 이적을 보고 이곳에 용화삼회의 미륵하생을 염원하는 미륵사를 세웠다.

무왕(재위, 600~641)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1400년 전의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실린 것도 600여 년이 지난 이후이고, 이 기록이 80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당시 적대국이었던 백제와 신라의 결혼이었다는 점, 서동설화가 '내복(福)에 산다'라는 설화의 재현이라는 점, 서동설화는 백제에서 만들어진 설화가 아니라 신라나 후백제 등 후대에 만들었다는 점 등을 들어 서동설화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견해도 있었다.

그러나 엄연히 『삼국유사』에 서동설화가 기록으로 남아있는 점, 미륵사지의 발굴 결과 설화의 내용과 상당히 부합된다는 점, 적대국 사이에서 정략결혼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역사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견해가 많았다. 무엇보다 국경을 초월하여 마를 캐던 소년이 일국의 공주와 사랑을 이뤘다는 카타르시스는 역사적 사실과 상관없이 역사적 진실로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모든 이의 연인(戀人)으로 남았던 서동과 선화는 천년하고도 육백년이 지난 2009년 1월 파국의 위기를 맞게 된다. 미륵사지 서



02



03

01 익산 미륵사 서탑의 해체 전 모습. 우리나라에서 목탑 양식의 가장 오래된 탑이다. 국보 제11호

02 2009년 1월 미륵사 서탑 심주석에서 발견된 사리봉안기와 사리호. 사리봉안기에 선화공주가 아니라 사택왕후가 미륵사를 창건했다고 나와 있다.

03 미륵사지 원경. 서원(西院)의 서탑은 해체 중이고 동원의 석탑은 근래 복원하였다. 중원의 목탑은 예전에 소실되었다. 뒤편의 산은 용화산이다.



04



05

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미륵사 창건과 관련된 새로운 기록이 발견된 것이다. 탑에서 발견된 금판의 양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가람(伽藍)[절]을 창건하고, 탑을 세우고, 사리를 봉안한 내역이 적힌 '사리봉안기'였다. 봉안기에 의하면 백제의 사택씨 성을 가진 왕후가 639년 가람을 창건하고 탑에 사리를 봉안하였다고 한다. 봉안기에서는 무왕을 폐하(陛下)라 부르는 등 무왕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어디에도 선화공주는 보이지 않았다. 천년 이상 이어 온 선화공주의 신화가 깨지는 순간이었다.

사리봉안기가 발견된 이후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는 급전직하(急轉直下) 역사가 아닌 설화 속의 이야기로 떨어지게 되었다. 물론 무왕의 왕비가 1명 이상일 가능성을 상정하고 선화공주가 죽은 이후 사택왕후가 왕비가 됐을 수도 있고, 선화공주가 신라 출신이므로 백제의 왕후를 또 들일 수도 있다고 애써 위안을 삼아 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는 그저 가능성일 뿐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다는 반론을 받기 쉽다.

우리는 여기서 미륵사 창건의 사상적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륵사는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나 당시 수도였던 부여가 아닌 지방[익산]에 세워진 절이다. 왜 무왕은 공주나 부여가 아닌 익산에 당시 동양 최대인 미륵사를 창건한 것일까? 미륵은 석가모니가 입멸한 이후 56억 7천만 년 이후에 나타나 중생을 제도하는 미래의 부처이다. 왜 무왕은 석가모니가 아닌 미륵의 출현을 바랐을까?

이는 백제 왕의 잇달은 죽음과도 관련이 있다. 위덕왕은 598년에 죽었고 다음 혜왕은 599년에 죽었고 무왕의 아버지인 법왕은 600년에 죽었다. 598년, 599년, 600년 잇달아 세 명의 왕이 죽었다. 한 나라의 왕이 계속해서 세 명이 죽었다면 나라의 인심은 공황상태에 빠져 있다고 봐야한다. 그야말로 말세(末世)나 다름이 없었을 것이다.

특히 법왕(法王)은 왕의 시호에서 알 수 있듯이 석가모니를 의미한다. 즉 법왕은 왕이 된 이후 자신을 석가모니에 빗대었는데 즉위한 다음 해 죽게 된다. 세 명의 왕의 죽음, 특히 석가모니로 상징되는 법왕의 죽음은 충격이었다.

이에 무왕은 석가모니를 대신하는 새로운 세계, 미륵의 세계를 통해 백제인들에게 희망을 심어 주고자 하였다. 당시 수도인 사비[부여]가 아닌 익산에 새로운 이상향인 불신(佛神)의 도시, 신도(神都)를 세우고자 하였다. 미륵에 대한 염원은 미륵사의 가람배치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미륵이 하생(下生)하여 세 번의 설법을 통해 중생을 제도하는데, 미륵사는 3개의 탑과 부처님을 모시는 3개의 금당(金堂)으로 구성된 3탑 3금당의 가람배치를 통해 이를 그대로 실현시키고 있다. 이러한 3탑 3금당의 가람배치를 통해 미륵의 하생을 기다리는 구도는 역사상 백제 미륵사가 유일하다. 그만큼 백제의 미륵에 대한 희구(希求)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다.

미륵사의 미륵에 대한 염원이 위와 같다면 서탑에서 발견된 사리봉안기에 미륵에 대한 염원이 언급될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봉안기에는 미륵(彌勒)의 미(彌)자도 보이지 않았다. 봉안기에 선화공주가 보이지 않는 만큼 미륵이 보이지 않는 것도 충격이라면 충격일 수 있다.

봉안기의 첫머리는 '생각컨데 법왕이 세상에 나와'란 뜻의 '절이법왕출세(竊以法王出世)'로 시작하고 있다. 여기의 법왕은 석가모니를 말한다. 즉 미륵이 아니라 석가모니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사택왕후(沙宅王后)가 3탑 3금당의 미륵사를 창건하고 그 창건내력을 봉안기에 적었다면 당연히 미륵이 언급되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사택왕후가 미륵사 전체를 창건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다. 절 이름이 미륵사라면 당연히 중원[가운데 탑과 금당]은 미륵신앙에 입각하여 세워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미륵신앙에 입각하여 미륵사를 창건한 또 다른 인물을 상정할 수 있다.

또한 봉안기에 미륵이 없고 석가가 언급된 것으로 볼 때 사택왕후가 미륵신앙보다는 석가신앙에 가깝다고 추론할 수 있다. 봉안기에는 사택왕후의 아버지로 사택적덕(沙宅積德)이 보이는데, 백제의 유일한 금석문인 사택지적비의 사택지적(砂宅智積)도 같은 사택씨 가문이다. 사택지적의 지적(智積)은 『법화경(法華經)』에 나오는 인물로 석가모니의 큰 형이다. 곧 사택지적은 석가신앙[법화신앙]의 신봉자라 볼 수 있다. 봉안기의 법왕[석가모니]를 고려할 때 사택왕후도 석가신앙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이 탄력을 받는다면 미륵사의 중원을 세운 미륵 신앙자는 누구일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설화 속 이야기라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선화공주가 유력한 인물이다. 사리봉안기의 내용만으로 선화공주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미륵사는 미륵신앙을 주로 하면서 석가신앙이 가미되었으며 그 창건자도 서원[서탑과 서금당]의 사택왕후와 중원의 선화공주로 두 명 이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2인의 배후에 무왕이 있음은 물론이다.

백제 미륵신앙의 완성은 미륵사이지만 그 이전에도 미륵에 대한 이해가 깊었다. 서산마애삼존불은 중앙에 석가불, 왼쪽 협시에 미륵보살반가사유상, 오른쪽 협시(挾侍)에 제화갈라보살[혹은 관음보살]의 삼존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세의 석가가 과거의 제화갈라보살과 미래의 미륵보살반가사유상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즉 과거-현재-미래의 구도이다. 이 구도가 미륵이 중앙에 놓이는 미륵불국토(彌勒佛國土)의 미륵사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륵사의 중원이 미륵이고 서원이 석가[법왕]라면 동원은 어떤 부처일까? 중국 운강 석굴의 탑에 새겨진 불상이 주목된다. 탑의 1층 탑신에 두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고 2층 탑신에 미륵이 앉아 있다. 두



06



07

04 미륵사 복원모형. 미륵이 하생하여 3번의 설법을 통해 중생을 제도한다는 취지로 3탑 3금당의 가람구조를 이루고 있다.

05 미륵사 서탑에서 발견된 사리봉안기. '절이법왕출세(竊以法王出世)'로 시작하고 있다. 사택왕후가 639년 가람을 창건하고 사리를 봉안했다는 내용을 싣고 있다.

06 백제 사택지적비. 1행 아래 '사택지적(砂宅智積)'이 보인다. 법화경에 의하면 지적은 석가의 큰 형으로 나온다. 국립부여박물관

07 서산마애삼존불. 국보 제84호. 중앙의 석가여래, 앉은 자세의 미륵보살사유상과 보주를 든 제화갈라보살의 삼존형식을 취하고 있다. 과거-현재-미래의 구도다.


08

부처가 나란히 앉아 있는 이불병좌상(二佛竝坐像)은 석가가 설법하자 다보탑이 솟아 나왔다는 『법화경』의 견보탑품(見寶塔品)에 근거한 도상으로 석가와 다보불(多寶佛)을 말한다. 불국사의 쌍탑을 석가탑과 다보탑이라 부르는 것도 이에 근거한 것이다. 탑의 상단에 있는 미륵이 이불병좌상의 가운데로 하생하면 석가-미륵-다보의 구도가 된다. 미륵사의 경우 석가-미륵의 구도를 생각하면 동원은 다보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미륵의 중원은 선화공주가 창건하고 석가와 다보의 서원과 동원은 사택왕후가 창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추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는 설화 속 이야기로 남겨둬야 하며 미륵사는 선화공주가 아닌 사택왕후가 창건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적대국인 백제와 신라 사이의 혼인이나, 진평왕이 적대국인 백제의 미륵사에 장인을 보내 도와주었다는 것이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642년 백제가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김춘추의 딸과 사위를 죽인 이후 두 나라는 원수지간이 되었음에도 신라가 645년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에 백제의 장인 아비지를 요청한 사례가 있다. 적대국 사이에서 얼마든지 교류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서동설화를 '내 복에 산다'는 설화적 유형에 포함시키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 복에 산다'라는 설화는 첫째와 둘째 딸은 부모의 덕에 산다고 한 반면 셋째 딸은 '내 복에 산다'라고 하여 부모에게 쫓겨나 가난한 숯을 굽는 총각에게 시집을 가게 된다. 셋째 딸은 숯가마의 이맛돌이 돌이 아니고 황금임을 발견하고 이를 팔아 둘은 행복하게 잘 산다는 이야기다. 서동설화에서 서동요란 못된 노래를 불러 선화를 꼬일 정도로 똑똑한 서동이 마를 캐던 곳에 황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 가치를 모르고 있었는데,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 덕분에 황금의 가치를 알았다는 이야기와 흡사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내 복에 산다' 또는 같은 계열의 제주도 '가믄장이 이야기'의 남성 등장 인물은 별다른 특징을 가지지 못한 평범한 인물이다. 이에 반해 서동은 선화를 좌지우지(左之右之)했을 정도의 영특함을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서동설화의 황금을 다른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다. 연못에서 미륵 삼존이 솟아 나왔다는 미륵사 창건 설화와 더불어 서동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도 불교사상이 배경이 이루고 있다. 똑똑한 서동임에도 존재 가치를 몰랐던 황금은 바로 자기가 잊고 있었던 깨달음의 불성(佛性)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후대에 소를 찾아 떠나는 심우도(尋牛圖)도 같은 의미이다. 서동설화의 황금은 사람은 본래 불성[황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세에 빠져 그 의미를 망각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서동이 황금을 쌓아두었다는 것은 익산의 경제적 기반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서동설화에서는 이를 불성(佛性)이라는 불교적 교훈으로 대체하고 있다.

선화공주는 신라의 공주로 궁에서 쫓겨나 마를 캐던 서동과 결혼하였다. 서동은 자신이 마를 캐면서 자신이 용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망각했을 수도 있다. 황금을 몰랐던 서동에게 황금의 가치를 알려준 선화는 황금의 가치뿐만 아니라 서동이 장차 왕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도 일깨워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서동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선화공주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무왕은 부여를 떠나 익산에 새로운 세상을 세우고자 했듯이 선화공주도 자신의 세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익산에 미륵의 세상을 만들고자 했을 것이다.

사택왕후가 미륵사 가람을 완성한 해는 639년이다. 무왕의 집권 말기다. 사택씨는 백제의 대성팔족(大姓八族) 가운데 첫 번째로 사택왕후 당시 그녀의 아버지 사택적덕은 백제의 최고 관등인 좌평(佐平)이었다. 641년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사택지적은 좌평 중에서 제일 높은 대좌평(大佐平)으로 사택왕후와는 같은 성씨이고 좀 과감한 추론을 하자면 둘은 남매 관계일 수도 있다. 사택왕후는 이러한 사택씨의 가문을 배경으로 선화공주가 세우다 중단되었던 미륵사를 완공하였다. 사리봉안기에 의하면 사택왕후의 마음은 수경(水鏡)처럼 맑고 몸은 금강(金剛)처럼 단단하다고 하여 마치 성불(成佛)의 단계에 까지 이른 인물로 묘사되어 있다.

『미륵하생경』에 의하면 석가의 사리를 공양하면 미륵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사택왕후는 미륵의 이상세계에 도달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석가의 사리를 봉안했다고도 볼 수 있다. 미륵뿐만 아니라 석가까지 포함한 미륵사를 통해 그녀가 바라는 화합의 세계를 실현하고자 했을 것이다. 그러나 641년 무왕이 죽은 후 선화공주의 아들로 추정되는 의자왕이 즉위하면서 사택왕후와 그의 아들은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된다.

서동과 선화공주의 사랑 이야기는 『삼국유사』를 통해 우리에게 널리 알려졌지만 무왕과 사택왕후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왕위에 오른 지 40년, 나이 60을 바라보면서 사택왕후와 더불어 익산 미륵사를 찾아갔을 때 무왕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젊은 날의 선화가 떠오르지 않았을까? 이를 바라보는 사택왕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사람들은 무왕이 익산 미륵사를 창건하여 미륵의 세상을 바랐지만 오히려 국력을 쇠진시켜 백제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말하기도 한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인생도 끝이 있듯 나라도 끝이 있다. 이제 서동도 가고 선화도 가고 사택왕후도 갔다. 그러나 서동, 선화공주, 사택왕후의 그들이 나눈 사랑과 그들이 미륵사를 통해 꿈꾸었던 세상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꿈을 꾸게 하고 있다. IN

● 필자소개
한국학중앙연구원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및 연세대 사학과 강사이다. 논저로 『취리산 회맹과 백제』(공저), 「백제 대향로의 화생전변적 상징구조」, 「백제 익산 미륵사 창건의 신앙적 배경」, 「광개토왕대 영락연호와 불교」, 「신라 선덕여왕대 알영신화 재편과 첨성대」 등이 있다.


09


10

08 경주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 ©한형기

09 중국 운강 석굴의 탑. 1층 탑신에 이불병좌상, 2층 탑신에 미륵이 보인다. 미륵이 하생하면 석가-미륵-다보의 삼존 양식이 된다.

10 미륵사 서석탑에서 사리봉안기와 함께 발견된 석가의 사리를 봉안한 금제사리호의 문양